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A형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③	5	⑤
6	②	7	③	8	②	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⑤	20	⑤
21	①	22	④	23	①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⑤	29	①	30	①
31	④	32	④	33	③	34	⑤	35	④
36	④	37	④	38	④	39	②	40	⑤
41	①	42	②	43	①	44	③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발표 준비 과정을 이해한다.

(가)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분야인 통계를 제재로 떠올리고, 신뢰도를 확인하자는 내용을 주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제재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니 흥미도 느낄 테고.’에서 예상 청자인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있다. ② ‘통계 자료에 숨겨진 오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것을 떠올리고 있다. ③ ‘내가 통계 좋아하는 거 알잖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⑤ ‘앞으로 친구들이 통계 자료를 접할 때 도움이 될 거야.’에서 예상 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의 내용 조직 방식을 이해한다.

(나)에서 학생 1은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입니다.’에서 핵심 개념을 정의한 후, ‘가령 유권자가 10,000명이라면~’에서 가정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마지막에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생각하게 됐습니다.’에서 화자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제시하며 ‘여러분도 저처럼 신뢰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에서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거나,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점검하는 대목은 확인할 수 없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양상을 파악한다.

청자 2는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봐야겠어.’라고 하여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청자 3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청자 1은 ‘통계 자료는~요지였어.’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요약해 보고 있다. ② 청자 2는 핵심 개념인 ‘신뢰도’를 잘못 이해하여 ‘신뢰도는 95%라고 보면 되겠구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③ 청자 3은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은 신문 기사를 본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④ 청자 1은 ‘앞으로~확인해야겠다’에서, 청자 3은 ‘앞으로는~안 되겠어.’에서 생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에서 교수는 학생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 경험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한다는 것이 인터뷰의 목적에 해당한다. ② 학생은 교수의 설명에 대해 지역학이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이해

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질문하였다. ④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학생의 말에 반응하여 어려운 말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⑤ 학생은 교수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5. [출제의도] 인터뷰의 계획에 따라 인터뷰한 내용을 평가한다.

학생이 교수에게 지역학 연구자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은지를 묻자 교수는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학생은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교수에게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② 학생은 교수에게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교수가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학생이 지역학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④ 학생은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에서 학생은 글을 쓸 때 근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에서 활용한 근거 자료의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작문의 윤리적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가), (나)를 통해 ②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작문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학생은 글의 첫째 문단에서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를 말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를 (나)에 구현하였다. 종이컵을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문제라는 공동체의 고민을 담아낸 것으로서, 작문이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구성한다.

㉮를 통해 학교 학생들이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관심이 없고 귀찮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고 오물이 묻은 종이컵을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컵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실천 의식 부족이라는 것이다.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 내용은 둘째 문단에 추가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학생은 글쓰기를 계획할 때에 둘째 문단에서 종이컵 재활용과 관련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오답풀이] ④ ㉮의 ‘종이컵 수거 보상제’는 사용한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종이컵 사용을 아예 금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와 ㉮를 활용하여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용 컵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고 바르게 고쳐 쓴다.

(나)의 첫째 문단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문단은 이와 관련한 학교 학생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종이컵 재활용이 가치가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은 역접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을 ‘그래서’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학생의 글]의 첫 번째 문단은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ㄱ은 적절하다. 두 번째 문단은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을 할 때 겪었던 일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ㄴ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학생의 글]에는 강연의 내용을 글쓴이의 입장에서 요약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고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ㄴ은 적절하지 않다. 또,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 및 그것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ㄷ도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추어 글을 쓴다.

①은 첫 번째 문장에서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겠다는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③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는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는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한다.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서 ‘ㄹ’ 탈락, ‘ㅎ’ 탈락, ‘ㅡ’ 탈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으로서 ㄴ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서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사례 중 ‘웃하고[오탁고]’는 [온하고](교체)→[오탁고](축약)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 한편 ‘홀이불[혼니불]’은 [혼니불](교체, 첨가)→[혼니불](교체)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

12. [출제의도] 어간과 어근의 구별 방법을 파악한다.

용언은 그것이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복합어인지에 따라 어간의 구성이 다르다. 단일어인 용언의 경우 어간과 어근은 동일하다. ‘치솟다’처럼 파생어인 경우, ‘치솟-’(어간)이 ‘치-’(접사)+‘솟-’(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썸솟다’처럼 합성어인 경우, ‘썸솟-’(어간)이 ‘썸’(어근)+‘솟-’(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선생님이 제시한 세 단어에 적용하면, ‘줄이다’의 경우 파생어이므로 어간 ‘줄이-’가 ‘줄-’(어근)+‘-이-’(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힘들다’의 경우 합성어이므로 어간 ‘힘들-’이 ‘힘’(어근)+‘들-’(어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가다’의 경우 어간 ‘오가-’가 ‘오-’(어근)+‘가-’(어근)로 이루어져 있다.

13. [출제의도] 담화에서 대명사 사용 방식을 이해한다.

㉮의 ‘그것’은 대용 표현으로 사용된 지시 대명사로서, 담화 맥락 안에서 ‘영화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A가 ‘~났더라’라고 하여 민수가 화가 많이 났음을 직접 확인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이라고 묻는다는 것은 어색하다.

[오답풀이] ② ㉮의 ‘자기’는 B가 앞서 언급한 ‘영화’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재귀 대명사이다. ③ ㉮의 ‘아무나’는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부정칭 대명사이다. ④ ㉮의 ‘누구’는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미지칭 대명사이다. ⑤ ㉮의 ‘거기’는 담화 맥락 상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지시 대명사이다.

14.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에서 ‘달다’는 ‘(...을 ...에)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는 뜻이므로,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라는 뜻인 ‘달다’ ㉠의 용례로 추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②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의 활용 정보에 따르면, ‘달다¹’과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어간의 ‘ㄹ’이 탈락하면서 ‘다니’로 활용된다. ⑤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정보에 따르면, ‘달다’은 주어 외에도 부사어(‘...에’)와 목적어(‘...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고, ‘달다²’는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없는 서술어이다.

15. [출제의도] 피동문에 대해 이해한다.
㉡의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 모두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의 능동문에서는 ‘눈이 세상을 덮는 동작’이 연상되는 것에 비해, 피동문에서는 그런 동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날리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인 ‘날다’에서 파생된 경우이다. ⑤ ‘날씨’가 바뀌는 행위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문장의 의미 자체가 상황 의존성을 강하게 가져 동작성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16~19] (과학) 브라이언 그린, 『우주의 구조』
공간에서의 운동을 둘러싸고 뉴턴과 마흐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뉴턴은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공간을 주장했다. 마흐는 공간은 실체가 아니라며 가속 운동은 우주의 물질 분포 상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16. [출제의도] 갈릴레이와 뉴턴, 마흐의 기본 입장과 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운동하는 물체가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 배경이다. 그러나 마흐는 이에 회의를 품고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공간은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과 같이 뉴턴의 공간 개념이 마흐에게 계승되어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첫 문단 마지막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첫 문단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뉴턴의 절대 공간에 대해 이해한다.
[가]에 나타난 뉴턴의 생각에 의하면 속도의 변화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 간의 비교를 통하지 않고서도 감지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셋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 공간에 대하여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양팔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회전 운동이 아니라면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뉴턴은 모든 운동이 고정된 좌표계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뉴턴은 절대 공간이 존재하므로 운동과 정지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뉴턴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절대 공간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라고 주장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사례를 마흐의 관점에서 추리한다.
넷째 단락에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 마흐는 우주 안의 물질 분포 상태에 따라 운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텅 빈 우주에서는 회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주 내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빔줄이 느슨하게 당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⑤가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② 텅 빈 우주에서는 당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빔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텅 빈 우주에서는 회전 운동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 경우 빔줄이 당겨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④ 특정 조건에서 빔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수 있지만, 위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은 아니다. 그 근거는 우주의 물질 분포 상태이다.

19. [출제의도] 갈릴레이, 뉴턴, 마흐의 관점을 이해한다.
마흐는 공간이란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재석이는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놀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둘의 위치 관계는 계속 변했다고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마흐는 ⑤처럼 야구공을 기준으로 재석이가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리 없다.
[오답풀이] ①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므로 슬기에게 슬기의 책은 정지 상태에 있다. ② 절대 공간은 불변하는 실체이므로 재석이와 슬기의 이동 거리는 동일하다. ③ 슬기를 기준으로 보면 슬기의 책은 정지 상태이나 절대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운동하고 있다. ④ 마흐에게 공간이란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서술하는 용어이므로 슬기와 재석이의 위치 관계는 각자에게 변함이 없다.

[20~22] (기술) 여용주, 『수계 소화 설비 공학』
스프링클러의 개념과 화재 제어 원리,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스프링클러는 연소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작용과 공기 중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증기 팽창, 그리고 에밀전 효과를 통해 화세를 제어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스프링클러를 통해 방출되는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끓는점인 100℃까지 올리는 데 드는 열량이 많아지므로 연소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열량도 많아진다.
[오답풀이] ① 물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므로 증발 효율은 높아지게 된다. ② 25℃의 물 1kg을 끓는점인 100℃까지 올리기 위해 75kcal, 이를 기체로 변화게 하기 위해 539kcal가 필요하므로 총 614kcal의 열량을 흡수할 수 있다. ③ 냉각 작용으로 불을 끄려면 물이 흡수하는 열량이 연소물로부터 방출되는 열량보다 커야 모든 열을 흡수하고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④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에 작동하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므로 피난 시간이 확보된다.

21. [출제의도]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은 헤드의 감열체가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반면, ㉡는 사용자가 직접 손잡이를 누르는 조작 과정이 요구된다.
[오답풀이] ② ㉠은 약제인 물이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고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하지만, ㉡는 고체인 분말이라는 약제를 이용하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이용하여 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 분말을 방출하는 것은 ㉡이다. ㉠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은 실외의 화세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는다. ⑤ ㉠은 화재에 대비하여 휴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을 통해 글에 나타난 원리를 이해한다.
가. 냉각 작용이 일어나면 연소물로부터 열량을 흡수하여 온도를 빼앗게 되므로 ㉡조건을 약화시켜 이를 통해 연소가 억제될 수 있다. 나. 증기 팽창이 일어나면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희석시켜 ㉢조건을 약화시키고,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희석시켜 ㉣조건을 약화시키므로 연소가 억제될 수 있다. 라. 에밀전 효과가 일어나면 가연물인 유류와 산소, 즉 ㉣조건과 ㉢조건이 결합이 차단되므로 연소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오답풀이] 다. 냉각 작용은 산소를 차단하는 작용이 아니라 온도를 낮추는 작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23~26] (사회) 기획재정부, 『국채 2013』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국고채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 글이다. 국고채 금리는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데, 정부에게 유리한 복수금리결정방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단일금리결정방식, 이 둘을 혼합한 차등금리결정방식이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국고채의 금리를 경쟁 입찰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 그리고 ‘차등금리결정방식’이다. 따라서 이 글은 ①과 같이 금리 결정 방법(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 방식을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국가 간의 비교는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③ 전문가의 견해는 인용되지 않았다. ④ 통문에 반하는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24. [출제의도] 단일금리결정방식의 특징을 이해한다.
셋째 문단에서 단일금리결정방식이 복수금리결정방식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일금리결정방식에서 투자자는 보다 높은 투자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 국고채 발행의 목적과 근거가 제시되었다. ② 둘째 문단을 보면,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는 각각의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로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낙찰자들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셋째 문단을 보면, 단일금리결정방식에서는 낙찰자들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단일하게 적용하므로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둘째와 셋째 문단에서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 모두 투자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금리와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금리결정방식이 바뀐 이유를 추리한다.
복수금리결정방식과 단일금리결정방식을 비교하면 단일금리결정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다. 따라서 정부가 단일금리결정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고 이는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복수금리결정방식에서 정부는 이자 비용이 적게 든다. ③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 ④ 단일금리결정방식은 낙찰자들에게 단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⑤ <보기>에서 ‘국고채 발행을 촉진하고자 단일금리결정방식을 채택’이라고 하였으므로 단일금리결정방식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확

대하려는 것이다.

26. [출제의도] 차등금리결정방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차등금리결정방식은 각각의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는 방식이다. <보기>의 경우 발행 예정액이 700억 원 이므로 ㉠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낙찰자로 결정되며, 그룹화 간격이 0.03%p이므로 [㉢와 ㉤], [㉢], [㉣와 ㉤]로 그룹화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최종 낙찰자인 ㉢가 제시한 2.06%이며, 그룹별 금리는 각 구간의 최고 금리 2.06%, 2.03%, 2.00%으로 결정된다.

[오답풀이] ① ㉣가 속한 그룹은 2.00%로 낙찰 받는다. ② ㉤와 ㉢는 그룹이 다르다. ④ ㉣와 ㉢는 2.06%로 낙찰 받는다. ⑤ ㉠는 미낙찰된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중세 시대에 발전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변형을 거쳐 발전한 고딕 양식을 적용한 종교 건축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빛으로 가득해진 도시의 성당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위안 받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딕 성당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지어졌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고딕 시대 사람들은 성당에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고딕 양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자 했다. ② 로마네스크 성당의 천장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 둥근 아치 형태였다. ⑤ 성당 내부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자 한 노력이 고딕 성당에서 창을 크게 만들게 된 데 영향을 주었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버트레스’와 ‘플라잉 버트레스’는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플라잉 버트레스’는 높아진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버트레스’는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② 천장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자 벽 옆면에 길고 큰 창인 ‘클리어스토리’를 뚫었다. ③ ‘클리어스토리’는 큰 창에 해당하는데, 창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시공해 신비감을 부각하였다. ④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되던 둥근 아치형의 천장을 뾰족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고안해 냈는데, 이것이 ‘포인티드 아치’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를 통해 건축 분야에서 나타난 매너리즘 양식은 사회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르네상스 양식의 비례법칙으로는 혼란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비례의 법칙을 거부하며 일탈과 변형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도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기 위해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솟아올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지고자 하는 소망으로, 매너리즘 건축물은 혼란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매너리즘 건축물은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했다. ③ 고딕 성당이 로마네스크 성당에 비해 건물의 높이가 높았다. ④ 매너리즘 건축물은 일탈과

변형을 추구하여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운 것이다. ⑤ 매너리즘 건축물은 건물의 크기와 형태를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냈다.

3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입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다.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은 ‘논증’의 사전적 의미이다.

[31 ~ 33] (현대시)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이 작품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지친 삶을 살면서도 성찰을 통해 고단한 운명과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흰 바람벽’은 화자의 자기 응시의 공간이자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의 특성을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흰 바람벽’, ‘어머니’, ‘글자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다’의 현재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상념에 젖어 있는 시적 상황이 부각된다. ③ 화자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떠올리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독백적 어조가 된다. ⑤ 시의 마지막 부분 ‘초생달과 ~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구문이 시에서와 같이 도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명을 수용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식이 강조된다.

33. [출제의도] 시상 전개를 통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A]에서 시적 대상은 어머니이고 [B]에서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상념, 어머니와 옛 여인에 대한 연상, 화자의 자기 성찰로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 [B] 모두 화자가 방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 이동 양상은 없다. ② [A]의 ‘시퍼러등등하니 추운 날’에만 나타난다. ③ [A]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는 이전과 달리 화자가 자신을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부분이 보인다. ⑤ [A]에서는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연상하는 화자의 그리움이 환기되는 것이므로 현실 비판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흰 바람벽’의 이미지가 다양한 층위를 보이는 것은 ‘흰’색과 ‘벽’이 지닌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화자의 현실과 내면세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좁다란 방’ 역시 화자가 처한 가난과 고독의 상황을 드러낸다. 따라서 ‘흰 바람벽’과 ‘좁다란 방’은 의미적 대립을 이룰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전등’이나 ‘서즈’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가난이 시각화되고 누추한 느낌이 심화된다. ⑤ 열거된 자연물과 인물들(시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게 살아가도록 ‘하늘’이 부여한 존재들로 화자가 동질성을 느끼는 대상들이다. 이들을 통해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내면의 정결성을 잃지 않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 세계가 드러난다.

[34 ~ 3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장풍운전」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주인공 ‘장풍운’은 전직 고관의 아들로 태어나 외적의 침입을 받고 가족과 헤어지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전공을 세워 가족과 다시 상봉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작품의 후반부에는 가정에서의 처처 간 갈등이 전개된다.

35. [출제의도] 작품에 나오는 사건 내용을 파악한다.

‘공철’은 ‘난향’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난향’의 음성이 아내인 ‘운향’과 비슷하여 착각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옥사가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므로 스스로 말아서 처리하게 해 달라는 장풍운의 요청을 천자가 윤허한다. ③ ‘난향’은 ‘유씨’의 계교를 실행하기 위해 금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사귄다. ④ ‘유씨’는 ‘운향’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흔쾌히 정성껏 대접한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는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이 나와 있지만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한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유씨가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이 부인이 ~이 지경에 처하니 놀랍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심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등에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공철이 ~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랴.’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에 ‘장풍운’이 경성에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대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을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정당’은 ‘이 부인’이 거쳐하는 공간이다. ‘공철’은 ‘난향’에게 속아 이곳으로 들어가고 ‘이 부인’을 모해하려는 ‘유씨’의 계교에 빠져 ‘중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다.

[오답풀이] ①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인물은 ‘운향’이 아니라 ‘난향’이다. ③ ‘이 부인’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유씨’의 계교에 빠져 누명을 쓰게 된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 부인’은 ‘유씨’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날을 기다리다 ‘장풍운’의 진상 규명으로 누명을 벗게 된다. ‘이 부인’이 기지를 발휘해 고난을 극복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왕 부인’의 편지를 받은 ‘장풍운’은 경성으로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⑤ ‘장풍운’의 적극적인 의지로 음모를 꾸민 ‘유씨’는 사형을 당하고, ‘이 부인’의 정당성이 밝혀져 사건이 해결된다.

[38 ~ 40] (고전 시가) 이이, 「고산구곡가」

이 작품은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 지은 연시조로, 주희의 「무이도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각 수를 시간의 순서와 연관시켜 하루의 시간적 순환과 한 해의 계절적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학문과 연계시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한다.

이 작품은 매수의 첫 구를 ‘~곡은 어디메오’라는 유사한 어구로 시작하여 연시조로서 작품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수에 순차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눈앞에 펼쳐진 경관과 자신의 마음을 ‘하노라’, ‘하리라’ 등의 서술어로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풍자적 내용의 작품이 아니므로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시를 이해한 독자의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제2수>에서는 관암의 아침 경치를 묘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벗이 온 것처럼 이를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벗’과 함께 감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와 <제6수>의 ‘학주자’와 ‘강학’은 학문과 연관된 것으로 화자의 자연 속에서의 삶이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제4수>에서 반송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취병의 여름 경치를 묘사하여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제4수>의 ‘취병’이라는 지명은 ‘녹수’, ‘반송’과, <제7수>의 ‘조협’은 ‘고기’ 등과 연결해 볼 수 있다. ⑤ <제9수>는 물소리를 내는 계곡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풍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은 ‘조협’에서 한가로이 낚시하며 고기와 하나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고, ㉡도 낚싯대를 들고 내려간 강가에서 백구와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 화자와 대상이 대조되고 있지 않다. ③ ㉠과 ㉡ 모두 궁핍함과 관련된 좌절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41 ~ 45】 (현대소설) 임철우, 「아버지의 땅」

이 작품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사를 통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이념적인 문제로 사라진 아버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는다. 어른이 된 주인공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와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하게 된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보는 장면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내적 독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⑤ 현재와 과거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나’로 일관된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곱고 자상한 눈매’와 ‘나직한 음성’은 주인공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 기억하는 부분이다.

【오답풀이】 ④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망각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해 낸 주인공은 무덤도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서 잠들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25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귀환을 믿고 기다려 온 어머니 역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인식한 것이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역할을 파악한다.**

노인은 나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용서와 화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로,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유해를 수습하는 의식 자체를 강조하는 인물은 아니다. ③ 전통 윤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물은 아니다. ④ 세태를 비판하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의 대립을 중재하는 것도 아니다.

44.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환영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어머니가 살아온 삶과 관련한 것이지,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던 어머니의 환영에서 어느 순간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부재로 외롭게 살아왔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사건 순서를 재배열하여 서사 전개를 이해한다.**

어머니와의 장면은 과거 회상이고 노인과 유해를 수습하는 장면은 현재이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장면을 재배열하면 ⑤ → ④ → ① → ③ → ②이다.